

꼭 막힌 평화로, 드림타워 들어서면?

현재 포화상태로 완공 이후 정체 가중 불보듯
우회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2년째 거북이 걸음

평화로의 교통량이 제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제주도가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제주도의 '2019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관광대 입구 평화로를 지나는 차량이 하루 5만4779대로 제주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2018년 4만9653대보다 10.3%(5126대) 늘어난 것이다. 이어 엘리시안골프장 평화로가 5만1570대, 중산간도로

(월산) 5만742대, 일주도로(내도 검문소) 3만6623대 순이었다.

이처럼 평화로에 교통량이 몰리면 서 출·퇴근 시간대 평화로와 연결돼 있는 애조로와 노형로 등도 극심한 정체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도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6월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나서는 한편 지난 10월

부터는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난폭 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평화로에서 약 5.8km 떨어진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38층·169m, 연면적 30만㎡)가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며, 제주국제공항에서 내린 관광객이 렌터카를 타고 서부지역을 향하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광령과 도평, 월광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공

향을 연결하는 '평화로 우회도로(총 4.7km·사업비 73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으면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평화로 우회도로의 타당성 조사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그림같은 서귀포시 외돌개. 낮 최고기온이 15℃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인 9일 서귀포시 외돌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 절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지역언론 예산 지원
합리적 심사·적극성 필요”
시민단체 내년 도 예산 분석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꽃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제주도가 지원하는 언론사 예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제주도 본예산에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 공식 사업으로 확인된 것만 72억87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이 65억24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등이다.

이들 단체는 공모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언론사 광고·지원 예산은 전체 88건 중 88%인 78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언론사 지원 예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허위 영수증 발급… 보험금 챙긴 의사 집유 3년 15일 대입정시모집 상담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7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모 산부인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환자를 끌어모은 B(36)씨 등 알선책 5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

월까지 B씨 등 알선책 5명과 함께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모집한 뒤 특정 시술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과정에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13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 7억원을 알선책을 통해 시술료 명목으로 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알선책들은 환자를 모집하며 “고액의 시술비를 직접 내지 않고도 실손보험금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항공권, 숙박비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0 정시모집 대학진학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상담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도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교사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전에 학교별로 참가 인원 8~12명을 배정해 136명을 추천 받았다. 수험생 60여명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문체부 2019년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국민 92% “진보-보수 갈등 크다”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3명중 1명꼴 ‘일자리’ 꼽아
91% “경제적 양극화 심각”

우리국민 대다수는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는 1996년 이래 2001년과 2008년, 2008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일곱번째 이뤄진 조사다. 우리 사회 주요 집단별로 갈등 중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6년도 결과보다 14.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어 갈등이 '크다'는 응답은 정규직-비정규직 85.3%, 대기업-중소기업 81.1%, 부유층-서민층 78.9%, 기업가-근로자 77.7% 등의 순서였으며, 남성-여성 간은 54.9%, 한국인-외국인 간은 49.7%로 조사됐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90.6%로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은 결과,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42.6%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의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다.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중산층 이하' 59.8%, '중산층' 34.6%, '중산층 이상' 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9.7%,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9.9%로 나타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의 인식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41.1%)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3.8%, '사회복지가完비된 나라' 1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상환기자 sycho@ihalla.com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이뤄진다

농식품부 이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및 사료 운반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 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

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차량등록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이나 GPS 단말기 미장착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때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등록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규탁기자

발전기 | 철근절곡 | 절단기 | 진동공구 | 수공구 |
목공구 | 콤프 | 진동로라 | 건설기계 | 농기계 | 발전기임대 |
예초기 | 엔진톱 | 안전화 | 도로안전용품 | 안전표시 |

세영종합기계공구·세영산업안전

12월 14일 확장개업

| 인사의 말씀 |

항상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영종합기계공구가 세영산업안전과 더불어 확장 개업식을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새로운 도약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이정국, 임순이** 배상

제주도산관위
세영종합기계공구
제일중학교
법원
구세무서 사거리
정부종합청사
시청
제주대학교

세영
SMT11500

세영종합기계공구·세영산업안전
T. 758-0989

세영종합기계공구·세영산업안전
철근절곡 · 절단 (제주대리점) · 혼다 · 아마하 발전기 (제주대리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51, 453
TEL. 758-0989, 757-7177, FAX. 752-7908